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2, pp. 133-140,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2.133

환율변동에 따른 농식품산업 무역적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수[1], 남재우[2*]
[1]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전공 부교수, [2]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A Study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s in the Korean Agro-food Industry

Sung-Soo Lim[1], Jae-Woo Nam[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Trade, Konkuk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농식품 산업, 무역적자, 환율, 수입관리, 리스크 헷징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 of a staggering trade deficit on the Korean agro-food industry.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 for enlargement a trade deficit with foreign exchange rate. Despite the majority of grain importer does realize that there is a huge affection for price volatility on the business result, they are more likely to take flat pricing through the physical market to avoid risk of price volatility with exchange rate. Also the analysis of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s around the Korean agro-food export & import are conducted, particularly with the analysis of trade volume and food price affecting the export & import. Results from a survey show that the common factor to the effective use of overseas agricultural and foreign currency futures trading for grain traders in Korea.

Key Words : Agro-food Industry, Trade Deficit, Exchange rate, Import Management, Risk Hedging

1. 서론

한국은 농식품 분야에서 오랜 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생산구조와 시장개방 측면을 고려할 때 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그 원인이 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농축산물의 무역적자는 181억 3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일본, 중국, 레바논 등에 이어 6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입이 수출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Jae-Woo Nam(jwnam@kku.ac.kr)
Received October 28, 2019
Revised November 1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4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식품 무역적자의 심각성은 뒤로 한 채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육성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 정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농식품 분야 경쟁력 제고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어왔으나 해마다 무역적자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입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1].

수출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농식품 수출이 가공식품 중심인 것과 달리 수입은 국내농업에 직접 피해를 주는 신선농산물 중심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국내 농업성장에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증대 피해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수출지원과 함께 철저한 수입관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농식품 무역적자는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근래 들어 수입량에 비해서 수입액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그 시기를 살펴보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었던 해(2009년)와 수입액이 급증하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외무역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였다면 무역적자 확대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수출 측면을 보면, 신선식품 최대 수출국인 일본에서 2012년 엔저 현상이 시작된 후 대일 수출량은 증가하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엔화약세가 수출여건의 악화로 이어졌으리라 판단된다.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수출기업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은 크게 3가지이다. 상품 자체의 가격위험과 환율위험 그리고 해상운임 가격위험이다. 양승룡(2012)의 연구에 의하면 상품자체 위험보다는 환율위험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보다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2]. 그러나 농식품산업의 무역수지 분석을 환율변동 측면에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환율변동위험 관리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위험에서 찾고 구체적인 환율변동위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9~2013년 구간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무역에서 환율변동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농식품산업의 수출입 현황과 환율

국제외환시장이 최근까지 크게 동요하면서 환율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위험요소가 되었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상승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다. 대조적으로 환율하락은 수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환율변동은 수출입 기업의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수출입에 관여하여 상대적으로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농식품 분야의 경우 대부분 중소업체인 까닭에 환율변동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정부기관을 통한 수출입 업무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식품 분야는 생산량의 적은 변화에도 가격이 급격히 변하는 엷은 시장(thin market)의 특성을 지녀 환율변동 위험에 보다 취약하다.

Table 1은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물량과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3]. 한국의 2013년 농식품 수출량은 402만 톤이며, 금액으로는 78억 달러를 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수입량은 5천255만 톤, 금액으로는 약 342억 달러로 약 264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동 기간 한국의 전 산업에서 수출액 5,596억 달러, 수입액 5,156억 달러로 44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5].

Table 1. Export and Impor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od by Year

(Unit: thousand tons, million dollars)

year	export		import	
	quantity	price	quantity	price
2006	1,802.0	3,394.7	36,872	16,100
2007	2,051.0	3,759.3	38,025	19,242
2008	2,211.2	4,496.5	41,751	23,198
2009	2,634.3	4,809.3	43,518	21,240
2010	2,946.5	5,880.0	47,177	25,787
2011	3,479.4	7,691.3	47,529	33,184
2012	3,914.4	8,006.1	51,365	33,422
2013	4,023.1	7,875.9	52,555	34,192

※ Statistics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Food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Products, Forest Products, and Marine Products (Customs Clearance)

농식품 수출 측면에서 2006~2012년까지 물량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료를 보면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동 시기 엔화 약세로 인해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중국, 홍콩, 아세안 국가 등 제 3국가의 한국산 농산물 선호 증대로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였다고 판단된다[4]. 따라서 한국의 농산물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동 시기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한 엔화약세 전략이 실제로 한국과 같은 무역상대국 수출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Unit: million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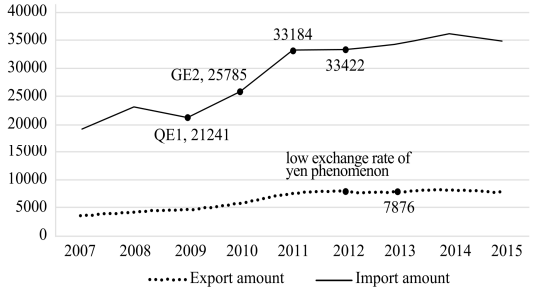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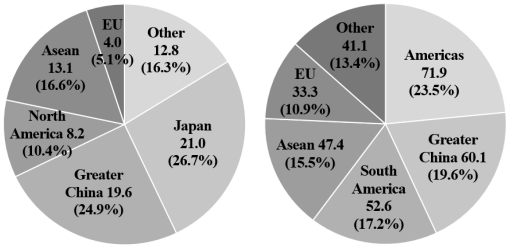
Fig. 1. Korean Agri-food Balance of Trade Considering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 Statistics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Food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Products, Forest Products, and Marine Products (Customs Clearance)

Fig. 1은 대외 환율변화, 즉 최대 농식품 수출 및 수입국인 일본과 미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한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5]. 농식품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2009년 약 212억 달러 이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 QE)이 이루어지던 2010년부터는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 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Table 1에서 2010~2011년 시기 수입물량의 변동이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식품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다[3]. 미국은 농경지 규모화와 기계화를 잘 구현한 신선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3년 기준 미주지역으로부터의 한국 농식품 수입액은 72억 달러(21%)에 육박하고 있다. 2009~2011년 시기에 농식품 수입액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Unit: billion dollars)



(a) Export amount (b) Import amount

Fig 2. Agri-food imports and exports by country in 2013

우선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 증대를 꼽을 수 있겠으나, 2009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1~2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FTA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로 인한 물량 증대로 수입액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2010~2011년 구간을 보면 수입량의 증가세가 크지 않음을 볼 때 농식품 수입액 급증이 반드시 물량 증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3. 대일 농식품 무역수지 및 시사점

3.1 일본의 엔저 현상

한국은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으로의 농식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쳤던 엔저현상을 살펴보고, 미시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새롭게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불리는 새로운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인 3대 경제정책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일본은 양적완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이는 엔화 강세를 촉발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엔화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3대 경제정책을 내세웠다[6].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시되었던 2012년 이전은 엔화강세, 이후는 엔화약세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3].

Table 2. Japanese yen exchange rate fluctuations

currency	2009	2010	2011	2012	2013
JPY (100)	1,363.6	1,320.7	1,391.6	1,139.3	1,135.4

이러한 엔저현상으로 인해 일본 수출품 가격하락은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이어져 수출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반작용 현상이 발생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켜 수입수요에 민감한 일본 국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7].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와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대일 수출량 감소를 들 수 있다. 엔저로 인한 한국의 대일 수출경쟁력 약화는 한국의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게다가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8].

3.2 대일 수출실적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대일 농식품 수출현황을 보면 Fig. 3에서와 같이 2012년 엔화약세 기간 이후부터는 물량은 증가하나 금액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 현상을 대일 수출품목 중 상대적으로 거래실적이 높은 채소류와 주류, 그리고 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Unit: Thousand Tons, Million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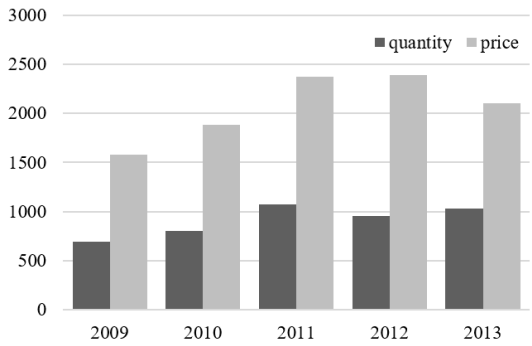


Fig 3. Export Status of Agri-food to Korea

Table 3을 보면 파프리카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출량은 증대하고 있으나 2013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하고 있다[3]. 수출량 증대는 파프리카 연합수출법인(Kopa)의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소비촉진전략에 기인하며 그 결과 일본 내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엔화약세로 인해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토마토는 2013년 기준 3,200톤의 대일 수출량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33%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기간 일본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 따라 외식업소용 토마토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마토 역시 수출량은 2012년 대비 33% 증가했으나 동기간 수출액 증가율은 6.4%에 불과해 엔화약세의 영향이 금액기준 증가폭을 낮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Exports to Japan by Major Items
(Unit: ton, thousand dollars)

year	item	paprika	tomato	kimchi	makgeolli
2010	quantity	16,162	1,056	24,134	19,415
	price	58,277	3,859	82,781	19,095
2011	quantity	16,478	1,655	22,053	43,082
	price	65,683	6,565	86,819	52,735
2012	quantity	20,762	2,400	21,450	30,658
	price	88,783	9,200	84,588	36,893
2013	quantity	22,017	3,200	19,211	18,222
	price	86,837	9,789	65,851	18,862

김치의 대일 수출은 2011년까지 금액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엔화약세로 인한 한국산 김치의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 증대,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에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막걸리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일 수출이 증가해왔으나, 2012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막걸리 주 소비층인 20~30대 여성의 주류 선호도가 막걸리보다 알코올 함량이 더 낮은 주류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품개발보다는 가격경쟁에 매몰된 결과로 파악된다[9].

아베 정권의 엔화약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012~2013년 수출 침체기를 보면 물량보다는 금액측면의 감소폭이 단연 큰 것을 볼 수 있어 엔-원 환율이 대일 막걸리 무역에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미 농식품 무역수지 및 시사점

4.1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2000년대 시장개방 여파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원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물량대비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액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먼저 대미 환율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달러의 평가절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적완화란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푸는 정책을 일컫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적완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됐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11월에 주택저당증권(MBS)을 6천억 달러에 매입한 것이 양적완화정책의 시작(QE1)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차 양적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여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두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하고(QE2), 2012년 9월에는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세 번째 양적완화정책(QE3)을 시행하였다[10].

Table 4. US dollar exchange rate fluctuations

currency	USD
2009	1,276.4
2010	1,156.0
2011	1,108.0
2012	1,126.8
2013	1,095.0
2014	1,053.1
2015	1,131.5

이러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권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을 보면, Table 4에서와 같이 미국 양적 완화정책이 시작되었던 2008년 12월 기준으로 환율은 2009년 평균 1274.4원으로 원화약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156원으로 원화가 절상되었고 급기야 2014년에는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53.1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다[5]. 이러한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와 본 연구에서 주목한 농산물 무역적자가 심화된 시기를 연결 지어 분석해보면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원-달러 환율변화 그래프와 미국의 양적완화 시기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Fig 4. Timing of QE and Changes in Won-Dollar Exchange Rate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Rewritten based on the exchange rate data of U.S.)

그림에서는 제1차 양적완화(QE1) 구간에서 원화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연히 보인다[5]. 또한 2차 양적완화(QE2) 구간에서도 원화강세 현상이 나타나므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식품 수입물량에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QE1

시기부터 대미 농식품 수입액이 물량대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계약을 US 달러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국내 수입상이 불가피하게 수입단가를 인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하게 하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외환손실에 따른 수입액 증가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다. 더욱이 농식품 수입액이 연간 35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의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4.2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농식품 수입액 급증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곡물가격 자체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의 2013년 기준 수입량은 52,555천 톤이고, 수입액은 34,193백만 톤이다[3]. 수입액 기준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6,163백만 달러(18.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대의 수입국이다. 더 나아가 품목별 수입비중에서는, 옥수수가 2013년 기준 물량이 8,741천 톤, 금액으로는 2,688백만 달러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밀과 대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높은 옥수수, 대두, 밀을 중심으로 대미 수입액 급증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Table 5. US Grain Imports by Year
(Unit: thousand tons, million dollars)

item		corn	avg. price	soy-bean	avg. price	wheat	avg. price
2009	quantity	5,923	0.223	409.5	0.52	1,058	0.293
	price	1,324		213.1		310.4	
2010	quantity	7,282	0.231	733.8	0.485	1,431	0.263
	price	1,684		355.8		376.7	
2011	quantity	6,024	0.321	556.3	0.586	1,281	0.396
	price	1,936		326		507	
2012	quantity	2,836	0.328	496.4	0.625	2,401	0.318
	price	930		310.3		764.5	
2013	quantity	192.2	0.347	554.4	0.67	1,140	0.432
	price	66.6		371.5		429.2	

The average unit price is the amount of imports divided by quantity.

Table 5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옥수수·대두·밀의 수입실적을 나타낸다[3]. 옥수수는 2009~2010년 기간에는 물량이 증가했을 때 수입액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2011년 기간에는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함에도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수입단가가 상승해서 수입액이 증가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기간이 달러 약세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2년, 2013년 연이어 대미 옥수수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곡물기간 2012~13년 미국이 5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옥수수 단가 상승은 한국의 수입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2013년에는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한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두는 수입단가가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여타 곡물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입가격 탄력성이 높은 작물이다. 미국산 대두의 수입단가를 보면 2009년 톤당 52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 48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3년 67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Table 5). 밀의 경우 2011년에 평균단가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산 밀의 수입량은 2010년 1,431천 톤에서 2011년에는 1,281천 톤으로 1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376백만 달러에서 507백만 달러로 25%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단가인상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환율로 인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able 5를 보면 2011년 이후 미국산 곡물의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동 시기가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조치 기간임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양적완화 이후에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를 조절하기 위해 2차 양적완화를 조치하면서 달러 약세를 통해 수출시장에서의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단가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무역흑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 구간에서 한국의 농식품 무역적자가 삼화된 것도 미국의 이러한 수출전략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Fig. 5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옥수수·대두·밀 선물가격과 한국의 수입량과 수입액을 나타낸 것이다[11].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옥수수·대두·밀의 수입 중량과 금액을 비교해보면 2007~08년과 2010~11년의 양상은 대비된다. 2007~08년에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대두 등의 공업용 수요증대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했고 이 구간에서 곡물가격 단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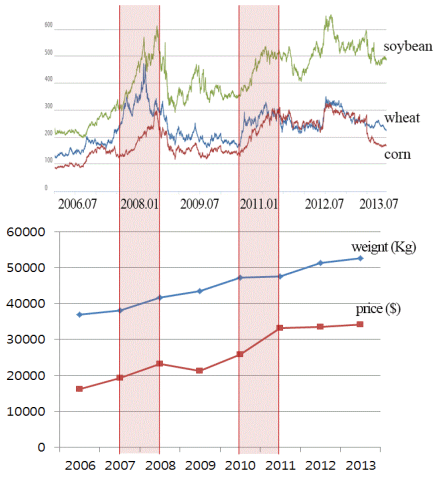


Fig 5. International Corn, Soybean, and Wheat Futures Price Trends and Korea's Imports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QE1, QE2) 조치가 국제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2010~11년 구간을 보면 한국의 대미 농식품 수입량 증가는 미미한 반면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시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환율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시장개방으로 수입 증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겠으나, 환율변동 위험에 기인한 수입액 증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장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출대국의 인위적인 환율정책 기조는 물량대비 수입단가 인상을 초래하여 수입국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곡물자급률이 23.8%(2016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농식품 분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수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관리 대책은 환율변동의 위험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5. 결론

2019년 2월에 단행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전쟁 위험 요인에 힘입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본 논문은 환율효과를 중심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달러약세와 일본의 엔저현상이 한국 농식품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율변동위험 관리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측면에서 교역량이 큰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갈수록 늘고 있는 농식품 무역적자의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무역상대국의 거시정책 변화로 인한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위험과 농식품산업 무역적자의 심화 기간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환율변동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수출을 보면, 일본 아베정부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물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율에 의한 수출 침체는 수출품의 단가하락으로 이어지며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시켰다. 한편, 수입측면에서는 2008년에서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달러화 약세가 2009~2011년 기간에 한국의 대미 수입액을 급격히 늘려 농식품 무역적자가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품목을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량 증대가 불가피하게 수입액 역시 증가시키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도 상대적인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의 효과가 미치는 농식품 수입액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생산자단체들은 생산원가와 물류비 등이 높은 상황에서 대외환율마저 불리할 경우 현지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채산성이 하락하며 이는 수출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영세성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영세한 수출업체는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소규모 수출상 또는 수출협의회 단체들에게 환율변동보험을 통한 환위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환율변동보험 지원정책은 영세·소규모의 수출업체들이 규모를 키울 때까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재정지원이 소요되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식품 수입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소요되지 않는 환율위험관리 방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식품 무역업체들은 상품가격변동과 환율의 변동, 두 부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상품가격변동은 선물시장을 통해 헤지(hedge)할 수 있으며, 환율의 변동 역시 통화선물시장과 연계한 파생상품의 개발을 통

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농산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기업농조차도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12]. 이들은 정보탐색비용을 포함한 거래비용과 선물거래에 내포된 난해성과 복잡성 때문에 선물시장을 통한 헤징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지불제와 작물보험 등으로 가격위험을 헤지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한 수출입기업들을 위한 환율 상담과 교육으로 환위험을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수출은 고품질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현재의 전략을 지속하되, 환율변동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방안을 통해 연간 26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농식품 무역적자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REFERENCES

[1] Y. K. Lee. (2012). *Agri-food export policy pursuing the illusion.* Farmers Newspaper.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50935/view

[2] S. R. Yang. (2003). Causal Relationships in the Livestock Industry: Feed Grain Through Retail Meat Prices. *Th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44(2),* 91-110.

[3]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ort & Export & Statistics.* Seoul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griculture.

[4] B. H. Lee. (2014). 2013 Agri-food Export Trend and 2014 Outlook. *aT FOCUS*, 44, 1-18.

[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Main Statistics of Agriculture.* Sejong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6] S. C. Chung, H. K. Lee & Y. K. Suh. (2013).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benomics in Japan. *World Economy Update, 12(2),* 1-16.

[7] I. Hur & E. J. Kang. (2013). Analysis of the Impact of Manuscript / Energy on Korea's Imports and Exports. *World Economy Update, 13(6),* 3-11.

[8] B. H. Lee & M. Jeoung. (2013). Impact of Abenomics on Domestic Economy and Implications. *Weekly Economic Review, 13(6),* 1-14.

[9] S. T. Lee. (2014). *Makgeolli exports plummet, unable to cope with changes in Japanese demand.* Newsis. http://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0402_0012829541

[10] K. H. Jang. (2018). Background and Status of QE. *click Economic Education, 20,* 11

[1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Overseas Grain Market Information.* Overseas Grain Market Information. http://grains.krei.re.kr

[12] B. Shapiro & B. Wade Brorsen. (1988). Factors Affecting Farmers' Hedging Decisions. *North Central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0,* 111-124.

임 성 수 (Sung-Soo Lim) [정회원]

· 2001년 8월 :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08년 9월 ~ 2011년 2월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금융, 산학협업비즈니스
· E-Mail : sslim07@kku.ac.kr

남 재 우 (Jae-Woo Nam) [정회원]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석사)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보검색, 통계
· E-Mail : lisnam@kku.ac.kr